

# 세계 베이커리 시장의 최신 동향

## 경기 회복 등에 힘입어 전반적으로 성장할 듯

영국의 제과 전문지인 「유러피언 베이커」지가 지난 4월에 보도한 바에 따르면 앞으로 세계 베이커리 산업은 전반적인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차츰 경기가 회복되고 있는데다 소비자들의 성향이 상품의 질에 더 많은 돈을 소비하는 쪽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 유럽은 다소 주춤, 동남아 국가들은 성장세

그러나 영국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의 빵의 소비는 생활 양식이 변화함에 따라 다소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감소 추세는 다양한 대체 상품이 시장에 지속적으로 선보임에 따라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최근들어 서구에서는 빵 대신 곡류로 아침 식사를 대체하고 있는 나라들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들 국가의 베이커리 산업의 미래는 건강빵이나 저지방 제품과 같은 고부가가치 아이템을 개발하는데 달려 있다고 「유러피언 베이커」는 밝히고 있다.

한편 이들 서구 시장과는 대조적으로 동남 아시아에서는 최근들어 전통적인 식사 대신 크로와상이나 브리오슈 등과 같은 모닝 빵으로 아침식사를 대신하는 나라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아직까지 주요 시장이 도시 지역에 제한되어 있긴 하지만 방송망의 활용과 다국적 기업에 의한 시장 확대 노력에 의해 지방으로의 시장 확산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에서 가장 큰 잠재적인 소비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중국은 비록 급격한 성장세를 이루고 있지만 아직까지 베이커리 저발전국으로 남아 있다.

베이커리 제품은 최근들어 역동적인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데, 91년에서 95년 사이에 약 18%의 성장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성장은 특수빵과 냉동 페이스트리 제품, 피자, 즉석빵 그리고 양과자류를 포함한 것이다. 또한 96년부터 오는 2000년까지 규모면에서 22%정도 더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독일, 1인당 빵 소비량 세계 1위

제품면에서 가장 두드러진 성장세를 보이는 것은 냉동생지다. 냉동생지는 여러해 동안 시장에서 높은 성장을 기록해 왔는데, 앞으로도 이런 성장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인스토퍼 베이커리와 간이매장은 소매시장 형태 중 가장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어 냉동생지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1인당 빵 소비량이 가장 높은 나라는 독일로, 95년 1인당 132kg을 소비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영국의 소비량은 독일의 절반 정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1인당 빵 소비량이 가장 적은 나라는 중국으로 1인당 소비량이 1.5kg에 불과하다. 

